

19년만에 안방극장 복귀한 배우 김윤진

# “‘미스 마’ 나의 국내 대표작 되길”



## SBS ‘미스 마, 복수의 여신’ 출연 애저서 크리스티 추리소셜 원작

배우 김윤진(45·사진)이 SBS 새 주말극 ‘미스 마, 복수의 여신’으로 19년 만에 국내 TV 드라마에 복귀한다.

그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그동안 국내 TV 대표작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며 “‘미스 마’가 김윤진의 TV 대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진은 그동안 국내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는 국내와 미국 드라마 촬영현장에 대해 “미국은 12시간 제도가 있어 일주일에 4일 촬영하고 그 외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루에 많이 찍어야 9인(scene) 찍는데, 한국 드라마는 하루에 20인까지 찍는다”며 “이번에 ‘미스 마’ 촬영 시작하고 집에서 빨래 돌려본 적이 없다. 다행히 남편이 외조를 잘 해주고 있다”고 웃었다.

김윤진은 “TV 드라마 제안은 전부터 받았지만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다. 그러나 ‘미스 마’는 대본 읽고 반해서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인상 깊게 본 국내 드라마로는 ‘비밀의 숲’과 ‘나의 아저씨’를 꼽았다.

김윤진은 “나의 아저씨’는 어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준 드라마다. 연출과 대본이 좋았다”며 “우리나라 드라마 참 잘 만들고 재밌다”고 말했다.

‘미스 마’는 추리소설의 거목 애저서 크리스티 작품 중 여성 탐정 미스 마플 이야기만을 모아 드라마화한다.

김윤진이 맡은 미스 마가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감옥을 탈출해 딸을 죽인 진범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뛰어난 추리력으로 주변인들의 사건까지 해결하는 이야기다.

김윤진은 “미스 마플에게는 개인사가 없지만, 미스 마에게는 개인사가 있고 한국화하면서 시청자들도 더 캐릭터에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다. 탈옥 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었던 미스 마가 따뜻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며 “원작 미스 마플처럼 극중에서 저도 뜨개질을 한다. 뜨개질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19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해서 뭘 보여줘야 한다는 욕심은 없다”며 “탄탄한 대본을 잘 전달하기 위한 고민만 한다”고 부연했다.

김윤진 외에 정웅인, 고성희, 최광재, 명계남, 황석영 등이 출연한다.

정웅인은 형사인 한태규를 맡았다. 한태규는 미스 마의 딸 실종사건을 맡은 형사이자 끊임없이 미스 마 주변을 맴돈다.

김윤진은 “처음 정웅인 씨와 액션신 찍었을 때 정웅인 씨가 계속 실제로 때려달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 그렇지만 저는 배우들이 현장에서 다치는 것 많이 봐서 실제로 하진 않았다”며 “정도로 현장에서 편안하게 해줘서 수월하게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6일 밤 9시 5분 첫 방송. /연합뉴스

## 아이유·현숙·유노윤호 팬 등 추석 맞아 이웃 사랑 실천해 ‘훈훈’

추석명절을 앞두고 스타와 스타 팬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5)와 팬클럽 유애나가 청소년들의 교육비로 써달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1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이유의 기부로 조손가정 열 곳에 노인의료비·생활비를 지원하고, 대입을 앞둔 청소년 12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이유는 2015년 1억원을 시작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3년째 기부금을 전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 재단에 2억2000만원을 쾌척했다. 지난 3월에는 한국농어인협회 서울시 농노노인지원센터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팬들도 스타의 선행에 화답했다. 일부 팬 커뮤니티는 여러 복지재단에 기부금과 헌혈증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쳐 잔잔한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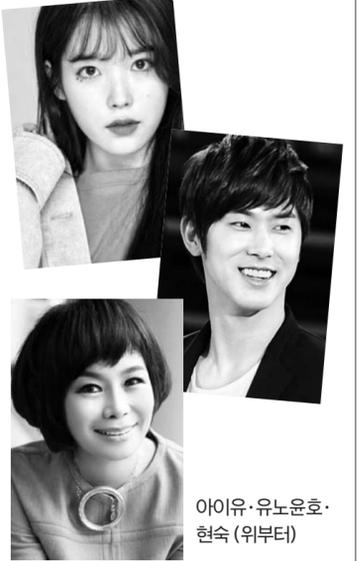
아이유는 “많은 팬이 제 이름으로 따뜻한 선행을 이어왔다. 작은 보답으로 팬클럽 유애나와 함께 기부에 동참해 매우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했다.

또한 ‘효녀 가수’ 현숙이 올해도 15번째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식 목욕차량을 기증한다.

2004년 고향인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곳곳에 14대를 기증한 그는 올해 강원도 두 지역에 15번째, 16번째 차량을 전달한다. 19일 오전 9시30분 인제군청, 오후 1시30분 횡성군청을 잇달아 방문해 총 2대를 기증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봉사에 참여한다.

현숙은 1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올해도 꿈이 이뤄졌다”며 “추석 전에 부모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데 명절 전 어르신들을 만나니 내 마음이 위로된다”고 특유의 시원한 웃음을 지었다.

매년 아버지가 있는 5월 이동식 목욕차



아이유·유노윤호·현숙 (위부터)

량을 한 대씩 기증하던 그는 올해 2대의 차량을 마련한 이유를 묻자 “제가 평소 하던 것에, 올해 치매 전문 요양센터 광고를 찍어 그 돈을 전액 들여 한대를 더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룹 ‘동방신기’ 리더인 유노윤호(32·정윤호)의 다국적팬클럽이 또 한 번 광주에서 기부를 이어갔다.

18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유노윤호 팬클럽 회원들이 쌀 3830kg를 맡겼다. 유노윤호 팬들은 1000여만원 상당의 쌀을 광주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유노윤호가 ‘값비싼 선물은 받지 않겠다. 그 돈을 기부해 사회에 도움이 되 달라’고 부탁하면서 2011년부터 팬들의 기부가 시작됐다. 팬들은 광주모금회를 통해 생필품과 쌀을 기탁하고, 유노윤호의 모금에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 ‘남북 정상 만남의 순간’ 실시간 시청률 20.09%

18일 시작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이 다시 만난 순간을 생중계한 방송의 실시간 시청률이 20.09%를 기록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부터 10분까지 지상파 3사, 종합편성

채널 4사, 보도채널 2사가 생중계한 ‘남북정상회담 평양 순안국제공항 남북 두 정상 만남의 순간’ 실시간 시청률 합은 20.09%로 집계됐다.

전주(9월 11일) 동 시간대 시청률(13.86%) 대비 6.23% 상승한 수치로, 남북 정상 만남에 대한 시

민의 관심이 높음을 증명했다.

채널별로는 KBS 1TV가 6.57%로 가장 높았고 SBS TV가 3.81%, MBC TV가 3.27%로 뒤를 이었다. 종편 중에서는 TV조선이 1.98%, JTBC가 1.42%, MBN이 0.91%, 채널S가 0.17%였다. 보도채널은 YTN이 1.08%, 연합뉴스TV가 0.88%였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기준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MBC 남북정상회담 특별생방송 평화, 새로운 미래	50 KBC 모닝 730
8	00 KBS 뉴스특보 제3차 남북정상회담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45 닥터 365 50 SBS 뉴스특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5~6부
9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		40 지구촌 뉴스		
11		00 1 대 100(재)		
12		05 살림하는 남자들(재)		
1		10 생생정보 스페셜		
2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		00 파파독 2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SBS 뉴스특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7부
6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7		50 끝까지 사랑	55 특집 MBC 뉴스데스크	
8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00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특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8부
9	00 특집 KBS 뉴스 9			
10	00 특집 대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가을, 평화의 바람이 분다	00 오늘의 탐정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30 오늘밤 김제동	10 회사 가기 싫어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버섯잡채〉	16:30 알라라 뿌우(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커피어드벤처 3부 커피 트렌드를 선도한다, 미국 시애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15 얼마 까투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1~5
07:30 꼬마버스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정글에서 살아남자-화산섬의 비밀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40 우리 가족 거리 출회기 -부모성적표 스페셜	19:30 EBS 뉴스
08:30 미니특급 X	14:30 코코몽3	19:50 특집 다큐멘터리 들뜸시민
08:45 알라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09:00 얼마 까투리	15:15 파파리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우리동네 이방인 - 니카의 제주 수채화〉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불멸의 마야 - 인디오는 어디로 가나〉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9일(음 8월 10일 甲寅)

<p>36년생 활동 영역이 넓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48년생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60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다. 72년생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판세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84년생 실호적인 방안을 강구하자. 행운의 숫자 : 39, 99</p>	<p>42년생 저변을 돌아보는 것이 기반을 튼튼히 하리라. 54년생 불편한 문제들이 속출하는 대목이로다. 66년생 우연한 기회가 행운으로 연결 되리라. 78년생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90년생 중요한 것들이니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3, 33</p>
<p>37년생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다. 49년생 여무지게 마무리하고 나아 후일을 도모하기가 용이해진다. 61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계획대로라면 대박이 날 것이다. 73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주마기편해야 한다. 85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 92, 98</p>	<p>43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55년생 광범위하게 유익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67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 될 것이다. 79년생 수순문해서라도 몰색해야 할 일이다. 91년생 상호 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0, 73</p>
<p>38년생 짐뭉치고 있다면 무의미하다. 50년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62년생 불완전하므로 여러 번 신경 써야 하는 수고로움이 계속된다. 74년생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긴다. 86년생 통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53, 20</p>	<p>44년생 손질을 한다면 바람직한 판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56년생 이미 지나간 것도 잘 살펴 볼 일이다. 68년생 일사천리로 펼쳐질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계속 하자. 80년생 걱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92년생 문제점을 청산 하자. 행운의 숫자 : 76, 15</p>
<p>39년생 애매해졌다. 51년생 내실을 기해야 의미가 있다. 63년생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75년생 혀는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몸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한다. 87년생 갈끔하게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행운의 숫자 : 55, 88</p>	<p>45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57년생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69년생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온다. 81년생 힘들었을 때 끈력 운동이 되는 원리를 알아. 93년생 착각으로 인한 오판을 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93, 59</p>
<p>40년생 미처 헤아리지 못한 하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52년생 원칙과 체계에 따르는 것이 영속성을 담보한다. 64년생 지혜가 많은 이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76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88년생 수용한다면 유익하리라. 행운의 숫자 : 16, 49</p>	<p>3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46년생 참신한 방법들을 터득하게 된다. 58년생 돈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막을 잡을 것이다. 70년생 사소한 원인도 경시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75, 46</p>
<p>41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때 매사가 풀리겠다. 53년생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65년생 긍정적 마인드로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77년생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겠다. 89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44</p>	<p>35년생 파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싹트리라. 47년생 통념과 상식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59년생 새로운 문사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71년생 대리인은 무의미하므로 본인과 직접 얘기해야 쉽다. 83년생 거저적거리기만 하고 소용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63, 54</p>